

광주시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꾸러미'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취약계층 학생 대상 방역물품·식료품·학습준비물 등으로 구성

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식료품, 학습준비물,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꾸러미' 지원 사업은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동신중, 신용초를 비롯한 각 학교에서는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꾸러미'를 꾸려

각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광주동신중학교는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 식재료 지원을 위한 '맞춤형 꾸러미'를 지난 20일 전달했다. '맞춤형 꾸러미'를 지원 받은 3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신중학교는 지난 4월 초 취약계층 학생 가정방문을

통해 교과서 및 원격수업 관련 스타트키트를 전달했다.

그때 방문한 가정 중 한 곳에서 밥솥 고장으로 인스턴트식품을 먹으며 하루에 한 끼로 생활하는 학생을 발견했다.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생복지심사위원의 협의를 거쳐 가전제품(밥솥) 등을 해당 학생에게 지원했다. 또 해당 가정을 재방문해 학생에게 직접 밥 짓는 방법 등을 알려 줬다. 학생과 온라인 학습 시 어려운 점 등 학교에서 나눌 수 없었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눴고 학생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동신중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보호망을 구축하고 등교 개학까지 취약계층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며 "필요 시 긴급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용초 교육복지사는 "이번 '맞춤형 꾸러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상 학생의 학부모님과 자녀와 온라인 학습 시 어려운 점 등 학교에서 나눌 수 없었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눴고 학생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50% 지원

"휴업 장기화 따른 유치원 재정결손 해소"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치원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금 지원에 나서 유치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휴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재정결손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4월 분 수업료 반환금 중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기간의 휴업은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해 불

만이 쌓이고 있으며, 유치원들도 미등록·퇴원 유아 증가로 재정결손이 발생해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학부모 부담금 중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기타 선택적 경비(현장학습비 등)는 반환해줘야 한다.

수업료의 경우 반환의무는 없지만,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면 도교육청과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3~4월 분 수업료 전액을 반환 또는 이월(면제)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해당되는 유치원은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정종혁 유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유치원과 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뤄져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1인당 월 5만원 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은 기자

광주예술고, 한국화 전공실기 원격수업 운영



광주시 예술고과 원격수업 지원단이 광주예술고를 방문해 원격수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예술고과 원격수업 지원단이 최근 광주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예술고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예술고가 3학년(4월 9일), 1~2학년(4월 16일) 온라인 개학에

따라 전공실기 과목도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화 전공실기 수업의 경우 콘텐츠 촬영 장비가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한국화 실기 시범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학습방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 교사는 학생들이 실습할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하고, 풍경이나 사물에 대한 표현 기법을 알려주는 시범영상을 온라인 학습방에 탑재한다. 학생들은 시범영상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실기 연습을 한다.

학생들은 실습한 작품을 온라인 학습방에 학습과제로 제출해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작품을 비교·분석한다. 또 교사의 개별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실기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

광주예술고 김원익 교장은 "원격수업을 통한 실기수업은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실습 작품 공유를 통한 피드백 제공에서는 장점이 있다"며 "수업 준비와 피드백 제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교사와 학생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곳에서 준비된' 신안영재교육원 온라인 개강

신안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발맞춰 최근 '스마트신안원격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개강을 실시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한 3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친 신안관내 15개교 36명의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과학, 수학, 논술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받게 된다.

도서지역 학생들이 대부분인 신안영재교육원의 수업운영은 처음 개원했을 당시부터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했고, 계속된 업그레이드로 화상수업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돼 있어 이날 온라인 개강에 별도의 준비나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신안영재교육원 전담교사는 "대부분의 지도교사들이 최소 2년 이상의 온라인 수업경험을 갖

추고 있고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교육장은 입학생 모두에게 희망 도서를 각자의 집으로 배달했다.

김 교육장은 "주변의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탐구의 시작이다"고 전했다. 신안=정승호 기자

광주 천곡중학교,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꽃씨 뿌리기' 행사

광주 천곡중학교 전 교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 위한 희망의 꽃씨 뿌리기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

천곡중학교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전 교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행사를 교내에서 실시했다.

천곡중학교 김인곤 교장은 "위기(危機) 단어에서 '위'는 위험을

나타내지만 '기'는 기회를 나타낸다"며 "이번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다면 천곡중 모두에게 큰 성장과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